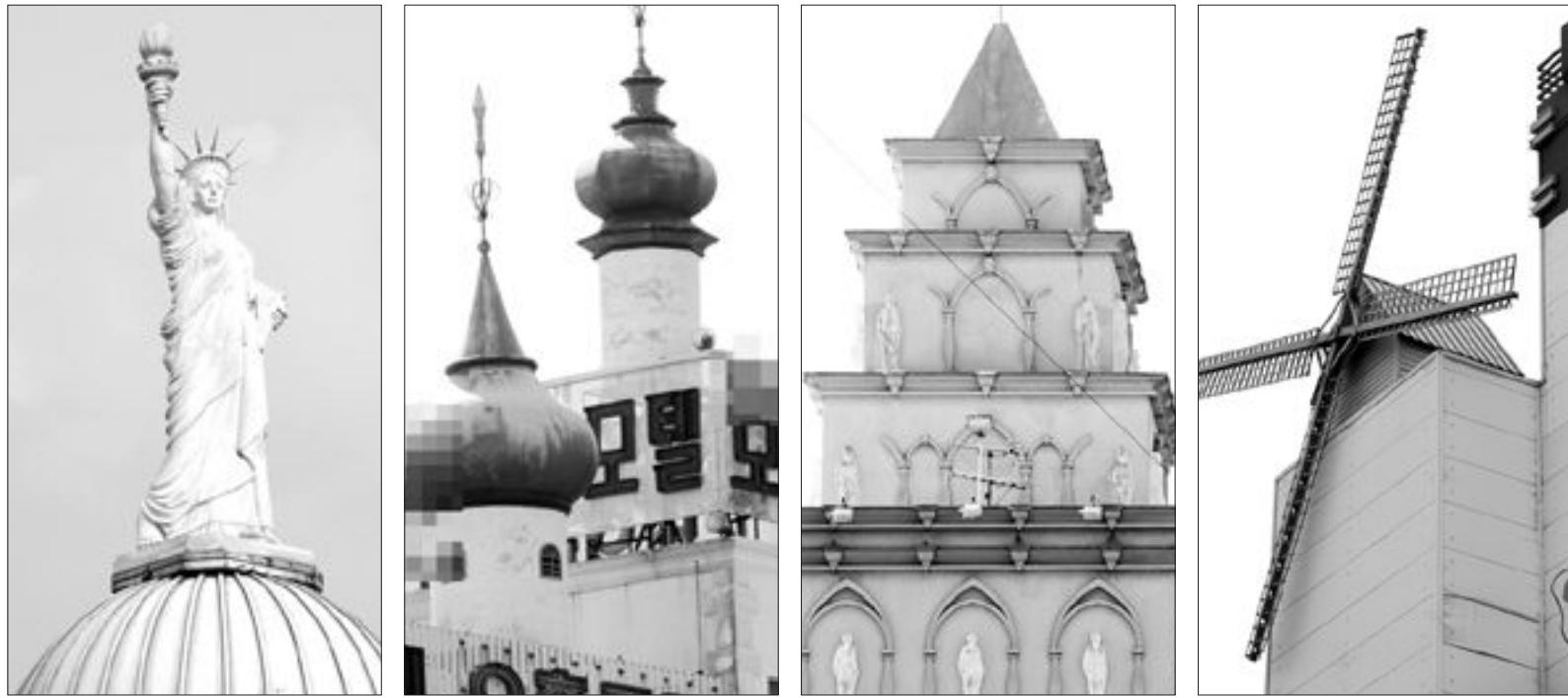


사회



광주 하늘 뒤덮은 자유여신상·헤라클레스·풍차 ...

모텔 장식물 경관 망친다

광주 숙박업소 1천 곳 경쟁적 설치

붕괴·추락 등 안전사고도 큰 위험

최근 광주지역에 지어진 모텔의 각종 장식물이 도시 미관을 해치는데다 일부 모텔 대형 장식물의 경우 빠져도 없이 지어져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마저 낳고 있다.

광주시 5개 구청에 따르면 13일 현재 모텔 등 숙박업소는 ▲동구가 229곳 ▲서구 200곳 ▲남구 82곳 ▲북구 292곳 ▲광산구 176곳 등 모두 979곳이다.

이 중 최근 3~4년 사이 지어진 신축 모텔의 경우 건물 옥상이나 외벽에 자

유여신상·헤라클레스·원형 기둥·탑·풍차 등 대형 장식물이 설치돼 있다.

이들 장식물의 경우 철판 구조로 만들어진 것도 있지만 철근 등 뼈대 없이 돌·벽돌·콘크리트블록만 쌓아 올려 만든 것이 많아 붕괴 등 안전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지난 6일 오후 12시20분께 광주시 북구 임동 6층짜리 H모텔(연면적 600㎡)에서 건물 옥상에 설치된 지름 80cm, 높이 2.5m의 원형 장식물 2개 중 1개가 무너지면서 18m 아래 바닥

으로 벽돌 수백 장이 떨어졌다. 다행히 추락지점 주변에 차나 행인이 없어 추가 피해는 없었으나 이 일대 소통이 1시간여 동안 통제됐다.

특히 서구 상무지구·광산구 첨단지구 등에 들어선 모텔의 경우 아무런 디자인 개념 없이 대형 장식물이 설치돼 도시 미관과 이미지를 해친다는 지적이다.

이들 장식물의 경우 건축법상 허가 신청 사항에 포함되지 않아 설치 현황은 물론 장식물 구조에 대한 파악 조차 어려지지 않고 있다.

건축법 시행규칙(제6조 건축허가 신청 등)상 건축허가를 받으면서 건축계획서(규모, 위치 등)·배치도·평면도(기둥·벽·창문·승강기 위치 등)·입면도(외부 마감재료 등)·단면

도(건축물 높이, 각 층 높이 등) 등을 첨부해 제출하게 돼 있는데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다보니 혼란 피약 조차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건물 옥상이나 외벽에 설치된 대형 장식물에 대한 규제 등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광주시 북구 관계자는 “현행 건축법상으로는 대형 장식물의 구조·재질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다. 최근 이와 관련, 대형 장식물의 구조·재질·높이·위치 등을 알 수 있도록 상세도를 제출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논의를 한 적이 있다”며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이 같은 대안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전남도 간부 공무원 전임지서

40억대 사업권 거래 개입 의혹

전남도 간부 공무원이 전임지에서 40억원대에 달하는 사업자간 사업권(사업 시행자 지정) 거래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일어 말썽을 빚고 있다.

13일 에스엔씨 조선해양(주)과 광양시 등에 따르면 에스엔씨 조선해양이 광양에 조선소를 짓기 위해 지난

2007년 10월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당시 광양시 국장으로 재직하던 전남도 모 사업소장 K씨가 조선해양 측에 해당 부지와는 무관한 땅에 설정된 사업권을 사라고 종용해 40억원을 주고 삼았다는 것이다.

사업권은 국가산단으로 지정된 해

당 토지에 대해 당시 T사가 사업을 하려고 지정받은 권리로,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다.

그러나 조선해양 측은 당시 T사 측과 광양시청 직원 2명이 입회한 가운데 40억원에 문제의 사업권을 매수한다는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돼 있다.

조선해양 측은 “조선소 부지는 이미 확보한 상태였지만 시 해당 국장의 ‘종용’을 거부할 경우 사업허가가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억지로 삼았다”며 “40억원을 T사에 송금한 통장 등 증거물을 모두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무원 K씨는 “회사가 부도가 나자 모든 잘못을 나에게 돌리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로 사업권 문제도 조선해양 측이 사업권 소유자를 소개해달라고 통시점을 해 연결해줬던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선해양 측은 지난해 3월까지

150억원을 투자했다가 경기 침체 등에 따른 자금 압박으로 지난 3월 부도가 났으며 제3자 양도 방식으로 회생을 꾀하던 중 광양시가 사업허가를 취소하자 크게 반발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박영진기자 pyj4079@

광주경찰 비리 심각

금품수수 징계 14명...수도권 제외 최다

1년6개월간...뇌물 1억 넘어

광주경찰이 최근 1년6개월간 금품 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 수가 서울·경기경찰청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올 8월까지 광주에서 금품 및 향응수수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은 14명에 이른다.

이는 전국 16개 지방경찰청 가운데 서울경찰청(87명)과 경기경찰청(43명)에 이어 3번째로 많은 것으로, 총 뇌물액수는 1억900만원에 달한다.

특히 광주청은 지방경찰청 정원을 감안할 경우 상대적으로 비위 경찰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이다. 현재 광주

경찰의 정원은 2천800여명으로, 전국 경찰관(9만9천554명)의 2.8% 수준이다.

광주의 비위 경찰관 비중이 높게 나타난 것은 불법 오락실 등 유형업소와의 유태 관계가 좀처럼 극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풀이된다.

실제 광주는 지난 1월 사행성 오락실 비호 대가로 ‘뒷돈’을 받은 경찰 간부 3명이 구속되는 등 경찰관 5명이 오락관 관련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았다.

전남경찰도 지난 6월 A총경이 오락실 업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았다가 징역 1년을 선고받는 등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극복되지 않고 있다.

전남청은 지난해 이후 4명의 경찰관들이 3천1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가 적발돼 징계를 받았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공사 현장 154차례 갈취

사이비기자 징역형 선고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양형권 판사는 13일 공사 현장의 사소한 잘못 등을 트집잡아 돈을 뜯어낸 혐의(공갈등)로 기소된 환경전문지 기자 과모(55)씨에 대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과씨는 지난해 9월 완도의 한 부두 공사현장에서 폐콘크리트 보관 등 잘못을 트집잡아 100만원을 받는 등 2005년부터 총 154차례에 걸쳐 4천 600여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구속 소됐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교통단속 경찰차 교통위반 688건

광주·전남 최근 5년간

3,760만원 과태료 부과

신호·속도위반 등으로 최근 5년간 광주·전남의 경찰차량에 부과된 과태료 건수가 700건에 육박해 교통법규 단속주체인 경찰의 법규 위반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 김소남(한나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

부터 8월까지 광주·전남 경찰차량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총 688건(3천760만원)에 이른다.

이는 전국 경찰의 과태료 건수(5천845건)의 11.8%로, 업무 중 불가피한 법규위반 건수를 포함할 경우 경찰의 실제 위반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전국 경찰차량의 과태료 부과 건수는 2005년 621건, 2007년 1천171건, 2009년 8월 1천791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김우철·이철 형제 간첩 사건’ 34년 만에 재심

광주고법, 고문으로 자백

군사독재 시절 경찰에 불법 연행된 뒤 간첩으로 몰려 온갖 고초를 당한 ‘김우철·이철 형제 간첩 사건’에 대해 법원이 34년 만에 재심 결정을 내렸다.

광주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장병우)는 13일 국가보안법과 반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고(故) 김우철·이철 형제의 유족이 제기한 재심 청구에 대해 재심을 결정했다.

우철씨는 일본에서 자수성가한 재일교포 사업가로 58세 때인 1975년 2월 고향인 강진을 찾았다가 지인의 거짓 신고로 인해 동생 이철(당시 51세)씨와 함께 경찰에 불법연행된 뒤 간첩으로 몰렸다.

이들은 법원에서 고문 때문에 허위 자백을 했다고 항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우철씨는 징역 10년, 이철씨는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아 만기 복역 후 출소했으며, 각각 1992년, 2002년 숨졌다.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미리 복제해
둔 차량 열쇠를 이
용해 과일 노점상
의 화물차를 통째로 훔쳐 달아난 ‘간
큰’ 60대 노점상 車 통째로 훔쳐
송기철·이철 형제 간첩 사건’ 34년 만에 재심
의 재판장을 통째로 훔쳐 달아난 ‘간
큰’ 60대가 경찰서행.
○…광주동부경찰은 13일 평소 알고 지내던 노점상의 화물차량을 훔친 김모(61)씨에 대해 절도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
○…김씨는 지난 2월 4일 밤 9시5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도로에서 사파 70박스와 현금 280만원이 실린 이모(63)씨의 차량을 몰고 달아난 혐의.
○…김씨는 “생계가 곤란한데다 때마침 복제해 둔 열쇠가 주머니에 들어 있어 그냥 지나치기 힘들었다”며 선처를 호소. /김형호기자 khh@

